

부처님, 제 짝은 어디 있나요?

육천 대성사 '따뜻한 만남' 법회 현장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십니까? 그렇지만 불교에서는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 하죠. 누구에게나 인연은 있습니다. 잠시 스치는 인연이라도 소중하게 여기겠다는 마음으로 자리를 다시 한 번 살펴보세요."

육천 대성사는 '그 곳에 가면 결혼할 수 있다'는 소문 덕분에 일약 미혼남녀들의 성지가 됐다. 이렇게 입소문이 난 것은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지난해 2월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따뜻한 만남'이라는 중매카페를 개설한 뒤부터다. 혜철 스님은 카페 등록회원들을 커피로 맞이하기 위해 매주 일요일 20~30여 명의 회원을 사찰로 불러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법회'라는 이름의 오프라인 만남을 주선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0명, 20명 모이던 참석자들은 입소문을 타고 점점 많아졌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열던 것을 올해부터는 셋째 주 일요일에 여는 것으로 바뀌었다.

2월 19일에도 어김없이 미혼남녀를 위한 '선남선녀 따뜻한 만남법회'가 열렸다. 법회 횟수를 월1회로 줄인 뒤 처음으로 여는 법회라서 그런지, 이날따라 유난히 많은 참석자들이 몰렸다. 법회에 참가한 130여 미혼남녀들은 경내에 들어서 불공으로 마음을 경건하게 가라앉힌 뒤 혜철 스님의 얼굴을 바라본다. 무슨 법문이 시작될까 싶은 호기심으로 가득 찬 눈이다.

하지만 혜철 스님은 모여 앉은 사람들에게 "저만 쳐다 보지 마시고 서로 눈을 돌려여 기 있는 선 남

선녀 얼굴들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라고 주문했다.

"선남선녀들은 모두 귀중하고 딱성 있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인연을 만나 선군을 심으려는 마음을 가진 1등 배우자 감이지요"라며 독려하던 스님은 한 발 더 나아가, 부끄러워서 눈도 제대로 맞추지 못하는 참가자들에게 "여기서 배필을 찾아 돌아가고 싶은 사

람들은 적 극적이어야 한다. "는 조언까지 한다.

참가자들도 웅기가 난 듯, 점차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다. 경기도에서 왔다고 소개한 남성은 "요리가 취미라서 일을 하는 틈틈이 요리사자격증까지 뒀습니다. 저에게 오시는 분은 제가 날마다 맛있는 요리를 해드리겠습니다"라고 큰 소리로 말해 법당 안에 웃음꽃이 피기도 했다.

서울 이태원에서 왔다는 김모씨(39)는 2남 중 장남이고 부모님은 절순이라고 소개하며 "다른 분들에 비해 단점만 많고 내세울 장점은 없는 것 같아 부끄럽지만 그래도 믿어주는 여성이 있다면 행복하게 헤드리고 싶다"고 솔직한 마음을 털어 놓아 여성들의 호감을 샀다.

젊은 총각들의 자기 어필은 소개할 때뿐만이 아니라 만남 법회 내내 이어졌다. 공양간에서 공양주보살이 나눠 먹으라고 과일들을 넣어주자, 주변에 있던 남성회원들이 여성회원에게서 과도를 뺏아들고 "이런 건 우리가 해야죠"라며 능숙한 솜씨로 과일을 꺾기



서로 연락처를 교환하는 모습

시작한다. 방 한 쪽에 앉아있던 여성 회원들이 소근 소근 속삭이며 웃는 것이, 그리 싫지 않은 눈치다. "어머나, 우리보다 더 잘 하네."

이상형에 대한 이야기도 종종 나온다. 김모씨(39)는 자신이 참작한 이유를 "조건만 맞추는 만남이 아니라 평생을 함께 나눌 만한 확신이 드는 사람을 찾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부부란 평생을 함께 공부해나갈 수 있는 '도반'이라고 생각해요. 부처님 전생담을 보면 부처님도 전생에 연꽃 잎꽃 송이를 공양한 처녀와 부부의 인연을 맺은 적이 있다고 나오잖아요. 법회에 함께 참석하고 부처님 뜻을 따르며 함께 긴 세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우자를 만났으면 좋겠어요."

혜 수많은 결혼정보회사를 놔두고 이 작은 사찰에 사람들이 몰리는지 짐작이 가는 말이다.

만남법회는 앞으로 더욱 다양한 시도를 해나갈 예정이다. 이날 법회에서도 '법당에서만 만날 것이 아니라 야외에서 만나는 방생법회를 열자'거나 '한 달에 한 번 법회에 참석할 때 각 지역 별로 차량카풀을 하도록 하자'는 등의 의견이 나왔다.

법회에 참석한 남녀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의견을 내고, 이를 스님께 전달하면 스님이 의견을 수렴해 다음 법회에 반영한다.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의 이름을 넘기지 자신의 이름과 함께 적어 내면, 스님은 개별적으로 이들 회원에게 연락을 해준다. 쪽지에 무엇인가를 열심히 쓴 뒤 사물을 나서는 이들의 발걸음이 가벼워 보였다. 이날 맺어진 아홉 커플의 얼굴에는 설레임과 기쁨이 가득했다. 대성사 (043)732-5560

육천 / 글=이은비 기자 · 사진=고영배 기자

중매카페 회원들 셋째주 일요일 사찰서 '맞선'

남성들 과일 직접 꺾으며 화기에애한 분위기 조성

130명 참가 9쌍 '눈맞춤' 성공...온라인 '중매' 계속



마음에 드는 사람 만나면 '부처님이 맺어주신 인연이다' 생각하고 꼭 잡으세요! 한달에 한번 만남법회를 주선하는 혜철 스님이 참가자들을 독려하고 있다.



부처님이 굽어보고 있는 대성사 뜰 앞을 거닐며 서로에 대해 알아가는 참가자들.

대성사 '따뜻한 만남' '붓다카페'

cafe.daum.net/dasungsa
cafe.buddhania.com/community/dasungsa

육천 대성사 회원들은 온라인 카페에 가입해 먼저 자신의 신상명세와 소개를 올린 뒤, 한달에 한번 셋째주 일요일에 열리는 만남법회에 참석한다. 지난해 2월 포털사이트 다음에 개설해 회원 수 2천여 명을 돌파한 '따뜻한 만남' 카페(cafe.daum.net/dasungsa) 외에도, 혜철 스님은 올해 1월 16일에 새로운 카페인 대성사 붓다카페(cafe.buddhania.com/community/dasungsa)를 블로그포털 부다피아에 개설해 더 많은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려 하고 있다.

만남카페 회원수 2천여 명 넘어서 새로 연 '붓다카페' 남녀 정보 가득 온·오프라인 연계 7쌍 결혼에 성공

새로 열린 대성사 붓다카페는 미혼·재혼남녀 정보를 열람할 수 있게끔 따로 게시판을 분류해 놓았다. 게시판마다 회원들의 직업과 연봉, 가족사항 등이 고스란히 들어있는 자기 소개서로 빼곡하다. 현재 약 600여 개에 이르는 회원정보가 올라와 있으며, 결혼 소원을 성취하고 싶은 누리꾼들로 인해 날마다 사연과 사진이 끊이지 않고 업데이트 되고 있다.

카페에는 '대성사 및 불교 뉴스 모음'을 비롯하여 '지대방 방문손님 글쓰기' '대성사 법회·행사 안내' '선남선녀신청 현황' '재혼남녀신청현황' '법회참석후기' 'I LOVE YOU (당신을 사랑합니다)' '지혜의 글 남기기' '43분환으로 자신 설명' '선남선녀 사진 올리기' 등 불자남녀의 인연을 맺어줄 다양한 카페코리가 구성돼 있다.

이러한 온·오프라인 연계 만남법회를 통해 지난해 결혼에 골인한 커플은 총 7쌍에 달하고 8번째 커플이 결혼을 앞두고 있다. 50여 쌍은 결혼을 전제로 교제중이다.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중매쟁이'를 자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법당을 신축하는 것만이 불사가 아니라, 불제자가 인연을 맺고 서로를 믿을 수 있게 이끄는 것이야말로 큰 불사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향(香)의 문화창조 선도하기 30년 만복향당

이제는 향을 피우는 분들의 건강을 생각하셔야 합니다. 저의 만복향당과 진품의 향기를 만나는 소중한 경험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주)만복향당 임직원 일동

세계적 수준의 조향기술을 자랑하는 일본향당(Nippon Kodo)과 합작하여 만든 (주)만복향당이 엄선된 원료들로 만든 고급향으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을 한층 더 편안하게 해 드릴 것을 자신있게 약속드립니다

본 제품들은 자연과 생활속에 향기를 자연소재 그대로 충실하게 표현한 아로마테라피(향기치료)적인 향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향을 접하시는 동안 자연에 대한 감사와 자신만의 소중한 행복할 시간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株)萬福香堂
www.mfbhd.co.kr

- ◆ 본사 : 서울시 서초구 양재 2동 374-3 봉우시티 3층 대표전화 02)577-4155 / FAX 02)577-0746
- ◆ 공장 : 경남 남해군 남해읍 아산리 447-2 전화 055)864-2432

부산 대리점 051)256-3353
광주(삼화불교사) 062)367-0652
대구(연꽃세상) 053)426-7300
전주(이화불교사) 063)251-7675

광주(불교서원) 062)226-3056
양산통도사(불연산방) 055)381-1060
익산(화엄불교사) 063)843-3220

전통향 시리즈 1 (견성향 · 지단향 · 천연목향)

견성향
참숯과 천연 허브 에센스를 사용하여 라벤더의 상쾌함과 부드러운 재현한 고급 무연향

지단향
오랜 동안 향을 사랑하는 이들의 귀한 벗이 되어 온 만복당이 권하는 대표적 고급 선향 기를 고르게하여 정신을 맑게하며, 피로를 풀어 신체리듬을 회복시켜주는 귀한 향

천연목향
자단과 함께 사랑받아 온 천연 목향과 백단의 풍부한 맛이 어우러진 깊고 부드러운 향취 자연향으로 남기를 치유하고, 강한 진정효과가 있다. 혈압을 낮춘다.

신제품
신품 향기인 **靑靑 아모레**
천연백단과 천연식물정유를 사용하여 강한 향균작용과 개미, 빈대등 방충효과가 탁월하며 비타민가 첨가되어 노화방지에 좋은 고급향입니다. 420년 전통의 일본향당(NK)이 수년 동안 심혈을 기울여 만든 신제품입니다. 아모레는 이탈리아어로 '사랑' 세이문아모레 - 사랑의 선향입니다.

향중 시리즈
라벤더 백매 히노끼 대나무 아쿠아

● **제품의 특징**
상쾌한 진향이 긴 시간 남아 있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정신적 긴장을 완화 시켜줍니다. 또한 각종 악취(담배연기, 지하실의 습한 냄새)를 원천적으로 분해 제거하여 공기를 맑게 하여 줍니다. 특히 연기가 적어 연소 후 맑은 공기를 유지하며, 향을 자주 사용하는 고객에게 권하고 싶은 고급향입니다.